"내년 정전 70년 맞아 6·25유물 수집 캠페인 준비"

김성한의 **남구 멘토에 길을 묻다**

⑨ **박 종 왕** 유엔평화기념관 관장

박종왕 관장이 유엔평화기념관 광장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예전에 택시를 타고 유엔평화기념관에 가자고 하면 으레 유엔기념공원 앞에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택시가 제대로 옵니다. 시민들도 이제는 유엔기념공원과 유엔평화기념관을 구분하는 것이죠. 그것만 해도 엄청난 발전입니다. 하하."

유엔평화기념관 박종왕 관장은 개관 초기 있었던 해프닝을 떠올리며 너털웃음을 터트렸다. 지난 2014년 11월 11일 문을 연 유엔평화기념관은 6·25참전 유엔참전용사를 기리는 세계 유일의 전문박물관으로 유엔평화특구 남구 내에서 유엔기념공원과 더불어 상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위트컴 장군 재조명에 각별 "유엔정신 가장 충실한 군인"

2018년 1월 2대 관장으로 부임한 박 관장은 사람들에게 낯선 유엔평화기념관을 '각인' 시키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세종시에 살고 있는 그는 무보수 비상근의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오륙도해군해관에서 숙식하며 처음 3년은 사실상 '상근직' 으로 상주했다. 유엔기념공원이 유엔군 합동묘역이자 성지로서의 엄숙함과 경건함을 가진다면 유엔평화기념관은 유엔기념공원이 못하는 다양성과 역동성을 통해 유엔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지난 4월말 유엔평화기념관을 방문한 윌리엄 클라이슬러 캐나다 참전용사의 휠체어를 밀어주는 박종왕 관장.

기념관 대대적 리뉴얼 공사 내년 유물 특별전 등 구상

기념관의 여러 사업과 프로그램 가운데 그가 가장 애착을 가지는 것이 리차드 위트컴 장군 재조명 사업이다. 2018년 관장으로 오면서 기존의 위트컴 장군 특별기획전을 상설전시로 바꾸고 이듬해부터 위트컴희망재단과 공동으로 위트컴 기념 세미나를 매년 개최해 장군의 업적을 대중에게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올해 추모 4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위트컴 장군 기념 주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위트컴 장군은 가장 훌륭한 유엔참전용사이자 유엔 정신에 가장 충실했던 군인입니다. 식량을 주기보다 농사짓는 법을 가르치듯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한 분이었죠."

개관한지 8년째 접어든 유엔평화기념관은 내년 정전협정 70주년을 앞두고 환골탈태의 변화를 맞고 있다. UN참전기념실과 다목적영상실의 대대적인 리뉴얼 공사를 벌여 내년에는 내외 참전유공자들을 대상으로 6·25전쟁 소장품 모으기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소장품은 물리적 형태의 유품 외에도 전쟁에 관한 기억과 스토리도 포함된다. "참전용사들이 버틸 수 있는 수명의 한계에 봉착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미리 서둘렀어야 했었는데 더 늦기 전에 그 분들의 기록을 수집해 세상에 알릴 계획입니다."

군인 출신임에도 박 관장은 영어와 프랑스어에 능통하다. 특히 육사를 나와 군 생활을 하면서 서울대 불문과에 진학해 소령이던 1980년대 군 전체에서 한 명 뽑는 유학생에 발탁돼 2년간 프랑스 유학을 다녀왔다. 몇 년 전에는 프랑스인 사위도 맞았다. 육군 준장으로 예편한 뒤 2011년 11월부터 5년간 국가보훈처에서 제대군인국장을 맡아 참전용사 초청 업무를 주관하며 수많은 유엔참전용사들을 만났다. 2015년 유엔기념공원 첫 사후안장자인 프랑스 참전용사 레몽 조셉 베나르씨의 유해 안장을 도우며 미망인 니콜 여사와 가족들을 만났고 이후 유엔평화기념관에서 이들 유족들과 재회하기도 했다. 유창한 프랑스어가 유대감을 높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박 관장이 만난 가장 인상 깊은 유엔참전용사를 묻자 주저 없이 6·25전쟁 때 시신수습팀으로 복무한 영국군 참전용사 제임스 그룬디씨를 꼽았다.

영어·불어 능통한 군인 출신 참전용사·유족과 깊은 유대감

그룬디씨는 은퇴 후 30년 넘도록 전우들을 찾아 매년 남구를 혼자서 방문하고 있다. 2018년 5월 방문 때는 박 관장의 배려로 기념관 3층 세미나실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가져 참석자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다.

"그룬디씨가 말씀하신 '당신들의 내일을 위해 우리의 오늘을 바쳤습니다(For your tomorrow, we gave our today)' 이 몇마디에 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부산남구신문 편집장

유엔평화기념관

- 위치 : 남구 홍곡로 320번길 106 (부산문화회관 뒤편)
-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 : 00~18 : 00(월요일 휴관)
- 관람료 무료 ■ 주차 무료
- 가는 방법 : 마을버스 남구9번 유엔평화기념관·일제강제동원역사관 하차 ☎901-1400

유엔기념공원 관리처 직원이 캐나다 전몰용사 기념비를 닦고 있다. 이 동상은 캐나다 참전용사이자 부산남구신문 명예기자인 빈센트 커트니씨가 2007년 제작, 설치했다. 사진=이무현 작가(명예기자)

유엔기념공원하면 평화로움과 경건함 못지않게 아름다움, 정결함이 떠오를 것이다. 이런 모습 뒤에는 드러나지 않은 노력들이 있다.

매일 해 뜨는 시각, 경비팀 직원들은 한 손에는 국화꽃을, 다른 손에는 국기를 들고 묘역으로 이동한다. '오늘의 추모용사' 기일에 맞춰 해당 안장자 소속 국가의 국기와 국화꽃 한 송이씩 묘에 헌화하기 위해서다. 2,315명의 안장자들 묘에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기일에 맞춰 헌화하는 것으로 공원의 하루는 시작된다.

오전8시부터는 시설조경팀 직원들이 출동한다. 밤새 떨어진 낙엽이나 나뭇가지들을 쓸어 담으며 청소하고 거미줄도 제거한다. 공원 전 지역에 자리 잡은 20여 개의 크고 작은 기념비들과 핸드레일 같은 시설물, 그리고 화강석 길을 반짝반짝 광을 낸다. 제일 관리하기 어려운 건 캐나다 기념동상이다. 동으로 제작돼 매일 세수하듯 닦아주지 않으면 새똥과 먼지, 빗자국 등으로 엉망이 되기 십상이다.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기념건축물 중 하나는 도은트 수로인데, 수로의 물을 맑게 유지하면서 비단잉어와 같은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꽤 까다로운 일이다. 열흘에 한 번 수로를 청소하는데, 물고기들을 전부 녹지지역 연못에 '휴가' 를 보내고 그 사이에 돌벽에 붙은 이끼와 이물질을 수세미로 꼼꼼히 문질러 닦는다. 여름엔 땀이 비 오듯 흐르고, 겨울엔 추위에 입술이 파래져도 꼭 해야 하는 작업이다.

조경도 마찬가지다. 요즘 같은 여름철엔 상징구역과 주묘역을 지나 녹지구역까지, 공원 전체의 잔디를 깎는데 꼬박 일주일이 걸린다. 그렇게 다시 상징구역으로 돌아오면, 땀을 뻘뻘 흘리며 작업한 것이 무색하게 잔디가 웃자라 있다. '하루쯤 빼먹으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매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게으름의 흔적이 쌓여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참전국 국기 관리 또한 중요한 일상 중 하나. 상징구역과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명비에는 참전국 22개국 국기와 태극기, 그리고 유엔기가 게양되어 있다. 이 국기들은 2개월에 한 번 교체하는데, 현충일, 유엔의 날, 턴투워드부산처럼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일정을 앞당겨 바꾸기도 한다.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할 때 유엔군 전몰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동시에 공원 곳곳에서 일하는 이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황순비 유엔기념공원 홍보담당

A 닦고 치우고 광내고 '365일 화장'